2024년 경북 시 · 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1

1. 연수 목적
2. 연수 기간
3. 연수 국가
4. 연수 인원
5. 연수 일정
6. 주요방문기관 및 지역

Ⅱ. 연수국 현황 ······ 3

1. 일반 사항
2. 우리나라와의 관계
3. 경제지표

Ⅲ. 연수내용 ······ 5

1. 바르셀로나22@ 도시재생지구 ······ 5
2. 발렌시아 농업연구소(IVIA) ······ 8
3. 까바 와이너리(Cavas Freixenet) ······ 11
4. 관광 산업 분야 ······ 14

Ⅳ. 정책적 시사점 및 총평 ······ 16

1. 정책적 시사점 ······ 16
2. 총 평 ······ 20

2024년 경북 시 · 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Ⅰ 연수개요

연수목적

○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불리는 스페인의 대표도시를 방문하여, 문화·건축·관광·교통 탐방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 문화예술과 관광 선진국인 스페인의 주요 도시를 견학하여, 경북에 접목 ·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함

연수기간: 2024. 1. 22. ~ 1. 29. (6박 8일)

연수국가: 스페인

연수인원: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 및 직원 38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상주시	의 장	안경숙	칠곡군	의 장	심청보	영천시	주무관	김상협
포항시	의 장	백인규	예천군	의 장	최병욱	경산시	주무관	송원석
경주시	의 장	이철우	봉화군	의 장	김상희	의성군	전문위원	김철년
김천시	의 장	이명기	울릉군	의 장	공경식	청송군	팀 장	심현성
영주시	의 장	심재연	상주시	팀 장	김범정	영덕군	팀 장	강시우
영천시	의 장	하기태	상주시	팀 장	이일수	청도군	팀 장	김상철
경산시	의 장	박순득	상주시	주무관	이재순	고령군	팀 장	석재국
의성군	의 장	김광호	상주시	주무관	이준상	성주군	주무관	한상진
청송군	의 장	권태준	상주시	주무관	최진석	칠곡군	주무관	배정필
영덕군	의 장	손덕수	포항시	주무관	이재영	예천군	팀 장	우진희
청도군	의 장	김효태	경주시	전문위원	권두우	봉화군	주무관	이슬기
고령군	의 장	김명국	김천시	주무관	백성우	울릉군	주무관	박천훈
성주군	의 장	김성우	영주시	주무관	김춘교			

연수일정

일 자	도 시	주 요 일 정
1일차 1. 22.(월)	인천 바르셀로나	‣ 인천국제공항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2일차 1. 23.(화)	바르셀로나	‣ 사그라다 파밀리아, 구엘공원 등 시찰 ‣ **까바 와이너리(Freixenet)** -샴페인과 동일한 전통방식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제조하는 과정 시찰
3일차 1. 24.(수)	바르셀로나	‣ **바르셀로나22@ 도시재생지구** -과거 낙후된 공장 지대를 도시재생을 통해 친환경 지역으로 개선 ‣ **보케리아 시장** -육류 농산물, 치즈를 판매하는 유명한 실내 공공시장
4일차 1. 25.(목)	발렌시아	‣ **발렌시아 농업연구소(IVIA)**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및 기술 등 연구
5일차 1. 26.(금)	그라나다 론다	‣ 알함브라궁전 및 정원 시찰 ‣ 론다 구시가지, 누에보 다리, 론다 투우장 등 시찰
6일차 1. 27.(토)	세비야	‣ 스페인 광장, 세비야 대성당 등 시찰
7일차 1. 28.(일)	마드리드 톨레도	‣ 마드리드 시내,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왕궁 시찰 ‣ 톨레도 전망대,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시찰
8일차 1. 29.(월)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주요방문기관 및 지역

- ❍ 바르셀로나22@ 도시재생지구
- ❍ 발렌시아 농업연구소
  (IVIA, Instituto Valenciano de Investigaciones Agrarias)
- ❍ 까바 와이너리(Cavas Freixenet)

II 연수국 현황

일반사항

- ❍ 국　　명: 스페인
- ❍ 수　　도: 마드리드(인구 333만 명)
- ❍ 면　　적: 505,990km^2 (한반도의 약 2.3배)
- ❍ 기　　후: 동남부는 지중해성, 북서부는 온대성 기후
- ❍ 지　　형: 산악 지형 다수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산지이며, 평균 고도가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
- ❍ 인　　구: 4,745만 명 (2020.1월)
- ❍ 언　　어: 스페인어
- ❍ 종　　교: 인구의 60%가 가톨릭 신자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스페인 수교 일자	1950년 3월 17일
한-스페인 교 역 (2020)	42.2억 달러 (수출 : 23억 달러, 수입 : 19.2억 달러, KITA) *2019년 54.2억 달러 (수출 : 27.7억 달러, 수입 : 26.5억 달러)

경제지표

국내총생산 (GDP)	1조 2,787억 달러 (세계 15위) *2019년 1조 3,936억 달러 (세계 14위)
1인당 GDP	27,132달러 (세계 35위) *2019년 29,586 달러 (세계 34위)
교역 규모	6,126억 달러 (수출 : 2,987억 달러, 수입 : 3,139억 달러) *2019년 6,865억 달러 (수출 : 3,256억 달러, 수입: 3,609억 달러)
관광 수입	197억 유로 *2019년 922억 유로 (약 1,115억 달러, 세계 2위)
외국인 관광객 수	1,895만 명 *2019년 8,350만 명(세계 2위)
실업률	15.5% *2019년 14.1%
산업구조 (GDP내 비)	서비스업 67.5%, 제조업 14.9%, 건설업 5.7%, 농수산업 3.2%, 기타 8.7%
화폐 단위	유로

출처: 2020, IMF, 스페인 통계청, 산업통상관광부

Ⅲ 연수내용

공식방문지(1)

❍ 장　　소: 바르셀로나22@ 도시재생지구

❍ 방문일시: 2024. 1. 24.(수) 09:00

❍ 방문목적: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룩한 바르셀로나22@ 지구에 방문하여 성공적인 지역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이룬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01년 카탈루냐 주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바르셀로나22@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4년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효과적 도시재생을 이룩한 바르셀로나 프로젝트에 주목하였다. 핵심 전략은 친환경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지역주민을 위한 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또한 성공적인 지역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이루기까지 20여년의 장기적 계획이 기반이 되었다.

‣ 바르셀로나22@ 프로젝트는 양질의 주거와 문화, 과학과 교육, 생산과 레저가 공존하고 상호소통하는 지식집약형 첨단산업지역, 즉 신개념의 도시커뮤니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시재생(Urban Refurbishment)으로 다양성을 갖추면서도 균형 잡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의 도시 및 산업시설을 지역 내 존재하는 건물, 녹지공간 등과 함께 배치하고자 하였다. 둘째, 스마트 신기술 및 첨단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산업과 지역문화와의 조화를 고려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활성화(Economic Refurbishment)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재생 및 개발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주민 등과 상호교류

하여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회통합(Social Refurbishment)을 추구하였다. 종합적으로 바르셀로나22@프로젝트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기존의 물리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 주거환경개선, 나아가 관광객 유치에까지 기여하는 지역 전반의 기능 개선 및 이미지 창출을 계획하였다.

❍ 질의응답

Q1. 22@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스마트 도시재생의 사례가 되기까지의 어떤 전략이 있는가요?

A1.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22@프로젝트는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을 투자하였습니다.

Q2. 22@프로젝트 추진 목표가 있었나요?

A2.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면에서는 주택과 거리를 정비하고, 공공 공간이나 녹지 공간과 같은 각종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등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디어, ICT, 에너지, 메드테크 등 네 가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주체가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3. 22@ 프로젝트의 주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포블레노우 도시재생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원주민이 도시를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기존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혁신지구 내에 문화 공간과 쇼핑센터, 서비스 기관을 모두 마련하고, 기업 건물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민 편의와 삶의 질은 높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행사 개최, 대학 등 교육 기관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였고 자연스레 기업과 대학, 사람들을 이끄는 스페인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방문사진

바르셀로나22@ 도시재생지구 방문 현장	

공식방문지(2)

○ 장　　소: 발렌시아 농업연구소
(IVIA, Instituto Valenciano de Investigaciones Agrarias)

○ 방문일시: 2024. 1. 25.(목)

○ 방문목적: 발렌시아 지역 고유의 농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연구소를 방문하여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경북 지역의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발렌시아 농업연구소는 발렌시아 지역 고유의 농업연구, 조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활성화하면서 스페인 전역의 농업관련 사업과 교류하는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많은 농업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수행하며 농업관련 사업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농업관련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설립 시기는 1991년 3월 13일이며, 연구원은 약 30명 근무(일반인 고용 300명)이다. 운영 예산은 스페인 정부 및 유럽연합 지원금 1억 6,000만 유로이며, 연간 약 135개의 농업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핵심 연구내용으로는 기상이변에 알맞은 품종과 연중공급을 위하여 늦게 수확하는 품종연구, 유럽을 겨냥한 색상과 맛좋은 품종연구, 염류집적에 따른 연구가 진행중이다.

- 감귤의 핵심은 맛과 색이며, 수확시기는 스페인의 기상환경(고온, 건조)에 대처할 품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감귤류의 수확은 인력이 중심이며, 감귤 기계화는 40~50%정도이며, 2015년 감귤박람회 참가 등 제주도와 연구교류 중이다.

- 벼농사와 관련해서도, 스페인과 발렌시아의 기후 특성에 맞는 품종과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재배 등을 통해 실증해오고 있다.

○ 질의응답

Q1. 발렌시아 농업연구소의 최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A1. 인구 수가 감소하고 농장이 계속 문을 닫고,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동물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은 0.75kg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홍보 캠페인으로 인해 이번 감소폭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지원과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Q2. 농업연구소은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A2. 발렌시아 농식품 부문과 관련된 자체 또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행하며, 얻은 과학적 결과를 이전하고 농식품 부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과학계의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촉진하며 농식품 부문과 관련된 발렌시아 공동체의 관심 주제에 대한 회의 또는 과학 회의 조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3. 벼농사와 관련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3. 간척지 특성과 발렌시아 기후특성에 맞는 품종과 재배기술, 그리고 친환경 농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 방문사진

발렌시아 농업연구소 방문 현장	

공식방문지(3)

❍ 장　　소: 까바 와이너리(Cavas Freixenet)

❍ 방문일시: 2024. 1. 23.(화) 15:00

❍ 방문목적: 전세계 No.1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인 까바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저장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프레시넷(Freixenet)은 1914년에 ‘라프레시네다(La Freixeneda)’를 소유한 페르에르(Ferrer) 가문과 이미 19세기부터 남미로 와인을 수출했던 스페인의 와인 선두주자인 살라(Sala)가문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설립되었다.

‣ 프레시넷은 1985년부터 확고부동한 전세계 No.1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이자 스페인 까바(스파클링 와인) 수출량의 56%를 책임지고 있다. 프레시넷이란 이름은 페르에르 가문의 문장인 ‘물푸레나무(Freixa)’가 자라는 장소라는 의미인데, 스페인 까바(스파클링 와인)의 대표 생산지인 페네데스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성을 띤 나무이기도 하다.

‣ 프레시넷은 스페인 최초의 기압을 이용해 포도 압착을 실행했으며, 발효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냉장 저장고를 사용한 스페인 최초의 와이너리이기도 하다. 1935년부터 런던과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까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전세계 No.1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로서 14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Q1. 까바 프레시넷은 샴페인인가요? 아님 와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A1. 까바(Cava)는 샴페인을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만, 포도가 다른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까바(Cava)는 스페인어로 저장고를 의미하며, 와인이 출시되기 전에 밀봉된 병에서 1년 이상 숙성되는 지하 저장고를 말합니다.

Q2. 어떤 프레시넷이 가장 좋은 건가요?

A2. 1974년에 출시된 꼬든 네그로 브뤼(Cordon Negro Brut)는 프레시넷의 가장 인기 있는 까바이며 종종 "Black Bottle Bubbly"라고 불립니다. 독특한 브랜드와 외관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알려져 있어 수입 스파클링 와인 세계 1위라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Q3. 까바는 품질이 좋은 편인가요?

A3. 까바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최고 가치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까바만의 카테고리를 찾고 스타일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표현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방문사진

<table>
<tr><th colspan="2">까바 와이너리(Freixenet) 방문 현장</th></tr>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able>

지역견학(4)

○ 장　　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성 가족 성당), 까사밀라, 론다 누에보 다리, 알함브라궁전, 톨레도 대성당, 마드리드 왕궁 등

○ 방문일시: 2024. 1. 23.(화) ~ 1. 28.(일)

○ 방문목적: 스페인의 관광은 산업, 비지니스/은행 부문 다음으로 국가 경제의 3번째로 큰 기여를 하며, 스페인 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여러 도시를 견학하여 관광적인 측면에서 배경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 접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로, 스페인은 여름 휴가 시즌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과 미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외국인 관광 산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 2017년에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국가였으며, 8,200만명의 관광객을 기록해 5년 연속 기록적인 관광객 수를 남겼다. 스페인은 세계 경제 포럼이 2017년에 발행한 관광 경쟁력 지수에서 136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에도 이미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스페인에는 많은 역사적인 도시들이 있다. 스페인의 가장 큰 두 도시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유럽의 주요 관광지이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무수히 많은 관광 명소를 가지고 있으며, 상업, 교육,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패션, 과학, 스포츠 및 예술에서 세계적인 주요 도시들이다. 스페인의 13개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알칼라 데 에나레스, 아빌라, 카세레스, 코르도바, 쿠엥카, 이비사, 메리다, 살라망카, 산 크리스토발 데 라 라구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세고비아, 타라고나, 톨레도) 2018년 7월 기준으로 스페인은 47곳의 세계유산이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54곳), 중국(53곳)에

이어 3위이다. 47곳 중 41개는 문화, 4개는 자연, 2개는 혼합(문화 및 자연 기준 모두 충족)이다. 다른 최고의 관광지로는 세비야, 그라나다, 산탄데르, 오비에도, 히혼, 빌바오, 산 세바스티안이 있다. 이들 도시들은 역사적인 유적지와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 방문사진

관광 산업 현장 견학	

Ⅳ 정책적 시사점 및 총평

정책적 시사점

○ 바르셀로나22@ 프로젝트의 정책적 시사점

- 단순한 물리환경개선 차원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그린시티 관점의 도시재생사업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변화의 과정에서 사업추진 거버넌스 및 세부계획 또한 융통성 있게 변화에 적응하였다는 점이다. 바르셀로나22@프로젝트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최신 산업동향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반영코자 다양한 민관협력형의 전략을 마련하였다. 단,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의 역사·문화적 보전가치 요소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단 또한 고려하였다. 스마트·그린 관련의 신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다.

- 특히 해당 사업은 2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반영하고 그 효과와 영향을 재고찰하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또한 단발성 계획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호흡으로 더 멀리 바라보고 변화를 수용한다면 성과의 지속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을 고찰하여 국내 지방의 쇠퇴한 산업단지 혹은 도심 공업단지에 적용한다면 산업과 지역주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3년 정도의 사업기간 동안 추진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역여건과 도시재생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지역별 도시재생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의 증가 등 선순환 구조의 도시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페인 농업 산업의 정책적 시사점

[발렌시아 농업연구소(IVIA)와 까바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거품 붕괴와 함께 내수 경제가 극심한 침체시기를 겪은 스페인의 경제는 2013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전 산업에 걸쳐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축산업도 마찬가지로 2009년 225억 유로였던 생산량이 2016년 285억 유로로 26.7%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출도 265억 유로에서 445억 유로로 67.9% 증가했다. 농축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양과 지중해성 기후의 전통적인 환경 요인과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집중지원에 있다.

- 발렌시아 농업연구소(IVIA)의 경우, 전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에 따라 보다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품종과 수확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농업기술, 염류집적에 적응 가능한 기술 등을 연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연구성과물은 스페인 전역과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공유되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유럽연합으로부터도 많은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경상북도청 내에 직속기관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는 생물자원, 유기농업, 성주참외과채류, 청도복숭아, 영양고추, 상주감, 봉화약용작물, 구미화훼, 풍기인삼 등의 품목별 연구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고, 농업자원관리원내 의성분원과 잠사곤충사업장,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등의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환동해지역본부 소속으로 어업기술센터와 수산자원연구원을 두면서, 경북도내 농축수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각 시군별로 설치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작물과 토양환경개선, 농작물 병충해 방제 등 농어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와 농어촌지도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기술 연구에 있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등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후, 신품종과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까바 와이너리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 개발과 적용으로 기존의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대량 생산과 대중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 왔다.

경북지역의 경우, 각 시군별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와인과 와이너리 업체가 산재해 있다. 상주 감•오디•유기농캠벨•청포도 와인, 김천 유기농 산머루 와인, 영천 포도(친환경 머루포도, 친환경 거봉포도)•오디•복숭아 와인, 경산 포도 와인, 의성 사과 와인, 청도 감 와인, 청송 사과 와인, 포항 유기농 블루베리 와인, 경주 포도 와인, 안동 청포도 와인, 문경 오미자 와인 등 다양한 고품질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

스페인의 까바 와이너리 사례처럼, 기존의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여 와인을 대중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스페인 관광 산업의 정책적 시사점

- 스페인의 관광 산업은 2023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은 작년에 8,4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여 1,08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게 하였다.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 방문객 및 매출 성장과 함께 관광업 고용도 2023년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023년 12월에는 25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이는 전년 12월에 비해 5.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관광 일자리를 기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2024년에 스페인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광 산업의 발달로 인해 첫째, 임시직보다 정규직 계약이 증가하였으며 둘째, 더 높은 임금과 더 큰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경북지역의 시사점]

• 관광과 일자리의 연계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의 경우, 현지가이드 인솔을 의무화하여 일자리 창출

(예시) 가이드 1명이 관광객 30명까지만 인솔인원 제한,

관광객 40명의 경우, 2팀으로 분리하여 인솔해야 함(일자리 창출)

• 관광과 시장(market)의 연계

보케리아 시장, 산미구엘 시장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관광상품화하여 관광객 증가 및 시장 상가 소득 증대 유도,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도심 디자인을 통한 관광자원화

-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번화가 상점에 돌출간판이 거의 없음
  도시 미관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
-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100%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
- 주교통수단인 도시 트램의 관광자원화 사례
- 다양한 형태·구조를 갖춘 예술적인 공공·민간 건축물의 관광자원화 사례
- 공원, 정원, 광장 등 시민 편의 증진 및 관광자원화 사례

• 역사유적(유물)의 보존 정책과 관광자원화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

총 평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등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함으로써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경북지역에 접목·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모색하고자 진행된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크게 도시재생 분야, 농업 연구 및 농산물 가공·유통분야, 관광 활성화 분야의 의정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과) 직원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상기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의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고, 상호간 의견 및 정보 교환과 교류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현재 중앙정부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보완하여 **바르셀로나22@ 도시재생지구(프로젝트) 사례**처럼, 지역여건과 도시재생 지역의 특수성,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지역별 도시재생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의 증가 등 선순환 구조의 도시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 연구 및 농산물 가공·유통분야에서는,**

발렌시아 농업연구소(IVIA) 사례를 참고하여,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기술 연구에 있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등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후, 신품종과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까바 와이너리 사례**처럼, 기존의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여 와인을 대중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경북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스페인의 관광정책[관광과 일자리의 연계, 관광과 시장(market)의 연계, 도심 디자인을 통한 관광자원화, 역사유적(유물)의 보존 정책과 관광자원화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경북지역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